# 백두산

15호 - 주체91(2002)년 4월 29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 김정일총비서 로씨야 모이쎄예브국립아까데미야 민족무용단 지휘성원들과 주요 배우들을 접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6일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로씨야 모이쎄예브국립아까데미야민족무용단 단장인 엘레나 알렉싼드로브나 쉐르바꼬바를 비롯한 무용단의 지휘성원들과 주요배우들을 접견하시였다.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로씨야련방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꼰스딴찐 보리쏘비치 뿔리꼽스끼와 조선주재 로씨야련방특명전권대사 안드레이 겐나지예비치 까를로브가 참가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로씨야 모이쎄예브국립아까데미야민족무용단의 조선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신 다음 손님들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였다. 석상에서 무용단 단장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창건 70돐을 맞는 뜻 깊은 시기에 친히 자기들의 공연을 보아 주시고 고무적인 말씀을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무용단예술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27일

# 선군정치는 애국애족의 정치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지금 부시행정부는 ≪악의 축≫론을 떠들면서 이북을 힘으로 압살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북은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에도 끄떡하지 않고 강성대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가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북 특유의 선군정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김현규 :** 아시다시피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은 군력에 달려 있고 군력이 약하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존엄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북은 바로 **김정일**장군님께서 펴시는 선군정치가 있음으로 해서 미국의 그 어떤 압살책동도 과감히 물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북은 이른바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과의 정치사상적, 군사적 대결에서 총한방 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여러 갈래의 외교대결전에서 강경자주외교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던 것도 독특한 선군정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북은 선군정치가 없었더라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킬 수 없었을 겁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야말로 미국의 그 어떤 고립압살책동도 다 제압해버릴 수 있게 하는 만능의 보검인 겁니다.

**사회자 :** 지금 부시미행정부는 있지도 않은 북의 대량살상무기문제를 걸고들면서 북을 그 무슨 위험국가요, 뭐요 하는 궤변을 또다시 늘어놓고 있고 또 그걸 구실로 해서 이남에 무기강매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행위라 아니할 수 없는데요. 사실 이북이 선군정치를 펴면서 군력을 강화하고 있는 건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으로부터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현규 :** 아시는 것처럼 이남에는 1천여개가 넘는 핵무기들과 방대한 대량살상무기가 배비되어 있잖아요. 바로 북침을 위해서 말이죠. 만일 미국이 북침전쟁을 일으킨다면 이북은 어차피 이남에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들을 타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땅은 잿더미만 남은 황량한 폐허로 화할 것이고 우리 민족은 공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북이 펴고 있는 선군정치는 이같은 민족적 재난과 핵전쟁의 참화를 미리 막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남의 각계 민중들이 우리 민족의 안전은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의해 담보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분에 대한 격찬을 금치 못해하고 있는 건 결코 우연치 않은 겁니다. 우리 민중의 이러한 목소리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무비의 담력을 지니시고 선군정치로 민족의 안전과 운명을 지켜주시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뜨겁게 슴베어 있다고 보는데요. 이처럼 위대한 영수를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그분께서 펴시는 선군정치가 있기에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도 담보돼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자 :** 참으로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는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수호하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한길로 나가는 애국애족의 정치인 겁니다. 미국과 이 땅의 반통일분자들은 이북의 선군정치의 위력을 똑바로 알고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을 걷어치워야 할겁니다.

국군장병여러분은 현시기 미국과 반통일분자들의 북침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설 것을 바라면서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국군장병들에게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7일


**2 종합**
-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 연회
- 선의 무장력은 필승불패
-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비전향장기수 상봉
- 조선인민과의 친선 련대성조직련합회의
- 미국은 조선을 둘로 갈라 놓은 장본인
- 외교통상부장관의 반북대결적인 망발

**4 노작**
- 조선노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 (10)

**6 세기와 더불어**
- 7장 3절 소비에트냐, 인민혁명정부냐? (1)

**8 칭송**
- 보배손
- 천하제일명장

**9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0 한국민족민주전선**
-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70년
- 자주통일로 향한 민심
-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짓부수자
- 현대판 돈키호테

**12 투쟁보도**
- 경기도, 미군반대 백만서명운동
- 전교조 민주화운동 인정
-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현재의 오판
- 공무원노조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
- 남북 이산가족 첫 단체상봉
- 민노당 서울시장후보 이문옥 인터뷰

**15 운동강좌**
-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 (5)

#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 연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서는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경축하여 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회를 차렸다.

연회에는 당과 국가, 군대의 지도간부들이 참가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온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서만술의장, 남승우부의장과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해외동포대표단들과 교포인사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는 ≪한국민족민주전선≫ 평양대표부 대표와 조선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무관단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연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차수가 연설하였다.

그는 조선인민군의 창건은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에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열어 놓은 력사적사변이였으며 조선에서 첫 주체형의 혁명적인민무력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였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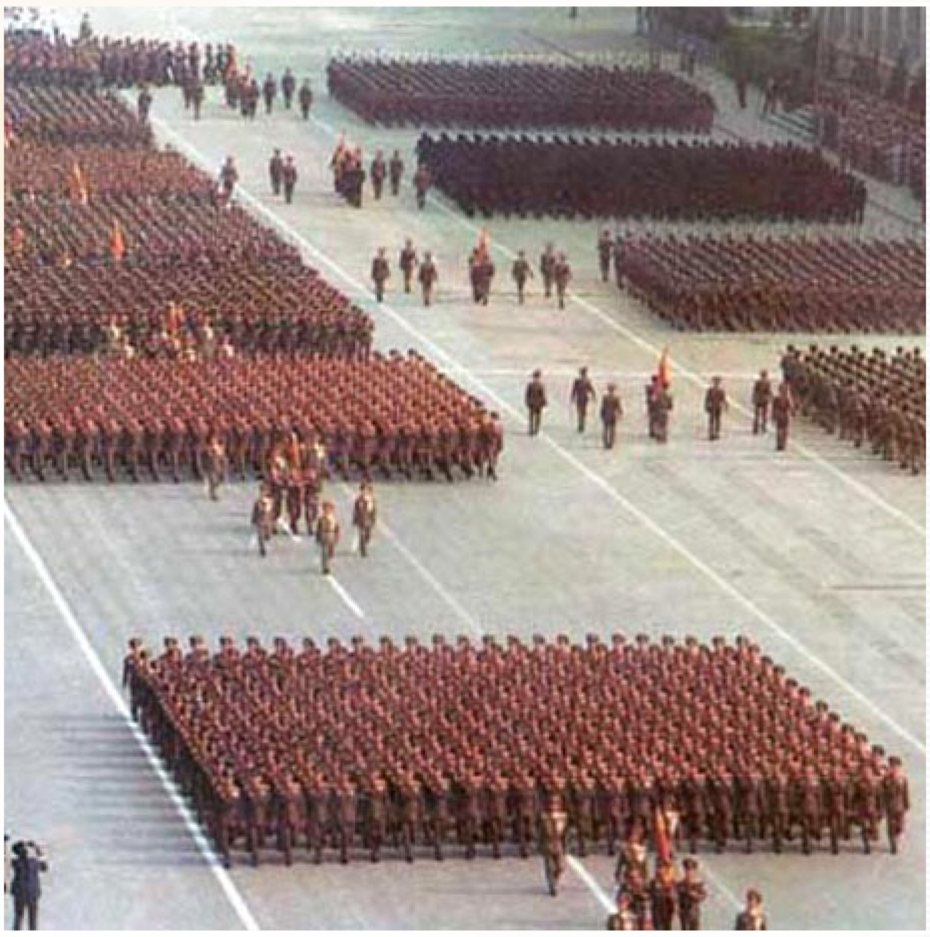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이룩하신 백두의 선군전통이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두차례의 준엄한 혁명전쟁에서 력사적승리를 쟁취하고 민족적독립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놓을수 있었으며 온갖 시련과 도전을 이겨 내고 혁명과 건설을 힘 있게 전진시켜 올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총대를 앞세우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이룩해 나가는것을 확고한 혁명령도원칙으로 삼고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불패의 선군정치를 펼치시고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혁명무력의 선도적역할을 높여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가 있었음으로 하여 조선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류례없는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헤치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선군의 기치밑에 수령, 당, 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영원히 필승불패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27일



# 조선의 무장력은 필승불패

## 로농적위대열병식을 본 외국인들과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기념, 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 로농적위대열병식을 본 외국인들과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은 조선의 무장력은 필승불패이라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캄보쟈푼씬뻬크당 부총서기 쎄라이 꼬쏠은 열병식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인민과 군대의 불패의 위력을 힘 있게 과시하였다고 하면서 이런 열병식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다고 말하였다.

스웨리예 맑스－레닌주의공산당(혁명가) 중앙위원회 위원장 안데르스 칼쏜은 보무당당히 나아 가는 열병대오의 씩씩한 모습은 그대로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모습이라고 말하였다.

미국로동자세계당대표단 단장인 당전국위원회 비서국 성원 데이르드르 그리스월드 스타프는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조선에서만이 이처럼 잘 째이고도 성대한 열병식을 진행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마리야 니끼포로바는 만민이 그토록 존경하고 흠모하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이번 열병식은 그이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려는 전체 조선인민과 군대의 확고한 의지를 잘 보여 주었다고 말하였다.

항일혁명투쟁연고자 진뢰의 부인 리민은 열병대원들의 름름한 모습들을 보면서, 열병대오의 힘찬 발구름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의 조선을 일떠세워 주시고 빛내여 주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이 되새겨 져 그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장울화동지의 아들 장금천은 광장에 차고 넘치는 환호성은 **김정일**장군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는 조선인민의 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라고 말하였다.

항일혁명투쟁연고자 호진일은 장엄한 열병대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무장으로 받들어 나가려는 조선의 무장력의 확고한 의지를 뚜렷이 과시하였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27일

##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일군대표단 비전향장기수들과 상봉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박영치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일군대표단 성원들이 26일 평양에서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 비전향장기수 리공순, 한백렬들과 상봉하였다.

석상에서 비전향장기수들은 수십년세월 남조선의 독감방들에서 혁명적신념과 지조를 끝까지 지켜 나갈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숭배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자기들을 통일애국투사로 내세워 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고 계신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만 믿고 따르는 혁명적신념만 있으면 그 어떤 원쑤도 무섭지 않고 못해 낼 일이 없다고 말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인 리동일, 고창우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청춘도 행복도 다 바쳐 싸운 통일애국투사들의 투철한 정신세계를 따라 배워 일편단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따르며 조국통일위업 실현에 모든 힘을 다 바쳐 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27일

## 유럽지역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조직련합회의

유럽지역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조직련합회의가 20일 단마르크의 쾨펜하븐에서 진행되였다.

련합회의에는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 프랑스조선친선협회, 핀란드조선협회,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 룩셈부르그조선친선협회, 조선과의 친선을 위한 영국협회, 에스빠냐조선과의 친선협회, 말따조선친선협회,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조선통일지지 스위스위원회 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련합회의에서는 조선과의 친선을 위한 영국협회 서기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으며 에스빠냐조선과의 친선협회의 활동경험교환이 있었다.

련합회의에서는 유럽지역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조직 행동강령과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편지가 채택되였다. 행동강령은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편지는 미행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면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 오고 있는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편지는 부쉬행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무모한 적대시정책과 침략책동을 중지하고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키며 6.15북남공동선언리행을 가로 막는 행위를 당장 걷어 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27일

## 미국은 조선을 둘로 갈라 놓은 장본인

### 미국사회로동당대표단 단장 기자회견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미국사회로동당대표단 단장인 당정치국 위원 스테픈 팔머 클라크는 22일 판문점에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조선을 둘로 갈라 놓은 장본인은 미국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선통일의 기본장애물로 되고 있다.

외세인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만 없었더라면 조선의 통일은 벌써 이룩되였을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강력히 반대하며 규탄한다.

미국은 어떠한 구실로도 남조선강점 미군의 존재를 합리화할수 없다.

우리 당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것이다.

미행정부는 시대의 흐름과 조선인민의 념원을 옳게 보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이것은 미국인민을 위해서도 좋은 일로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4월 27일

# 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의 반북대결적인 망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은 최근 워싱턴을 행각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맞장구를 치는 망언을 줴쳤습니다.

이것은 6.15남북공동선언과 공동보도문에 따라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발전되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전이 깃들기를 바라는 우리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사대매국적이고 반민족적인 망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부시행정부는 출범후 그 어느 행정부보다 고압적인 대북강경정책을 실시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 우리 나라의 자주적 통일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대통령 부시는 이른바 ≪강력한 미국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힘의 정책에 더욱 매어달리면서 이북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는 있지도 않은 이북의 미사일위협과 생화학무기위협을 떠들며 사찰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등 당치않는 주장을 되풀이하는가 하면 이북을 침공하고 위한 전쟁준비를 더욱 발광적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4년에 체결된 조미기본합의문의 이행마저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시는 이북을 ≪악의 축≫이라면서 이른바 ≪반테러전쟁≫을 이북에로 확대하려 하는가 하면 심지어 이북에 대한 핵공격계획까지 짜놓고 그 실현을 위해 광분하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의 이같은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한반도의 정세가 더욱 긴장되고 6.15공동선언이행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은 감히 부시행정부의 범죄적 대북강경정책에 맞장구를 치는 사대매국적이고 반통일적인 망발을 하는 용납못할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남북간에 제4차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지는 등 공동보도문이행을 위한 사업이 실천단계에 들어선 때 당국자들속에서 튀어나온 이런 망발은 공동보도문을 의도적으로 뒤집어놓으려는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각계 민중은 이에 분노의 치를 떨고 있으며 최성홍과 같은 반북대결분자의 목을 당장 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책임있는 고위당국자의 입에서 이런 망발이 튀어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국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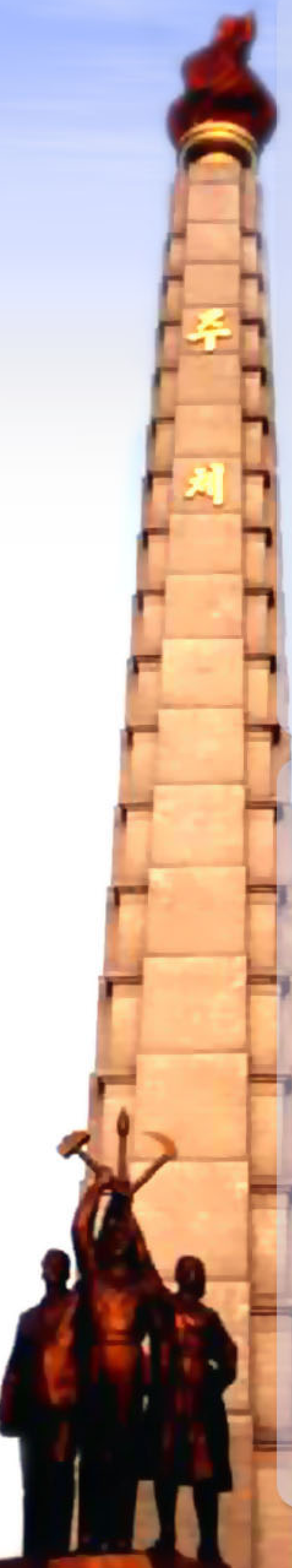
당국은 남북관계의 원상복구를 바라는 우리 국민과 온 민족앞에 이에 대해 반드시 명백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계 민중의 일치한 주장대로 미국상전에 아부하면서 사대매국적이고 반통일적 망발을 한 최성홍을 즉시 외교통상부장관에서 해임시키고 온 민족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7일

# 조선노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 (10)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노작 - 주체75(1986)년



## 6. 당의 영도예술 (2)

우리 당은 지난 기간 당일군들 속에서 낡은 사업작풍을 없애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 왔습니다. 우리 당의 사업작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투쟁기풍입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혁명하는 당이며 투쟁하는 당입니다. 노동계급의 당의 위업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온갖 낡은 것을 없애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는 거창한 위업입니다. 노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침체와 답보는 허용될 수 없으며 오직 끊임없이 혁신하고 전진하는 혁명적 기풍이 온 당을 지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전진시키기 위하여 언제나 원대한 구상과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 하며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진취적이며 창조적인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서나 목표를 높이 세우고 대담하며 통이 크게 사업을 전개하여 나가며 자만과 답보, 소극과 보수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사업작풍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적 기풍입니다. 혁명은 간고한 투쟁을 동반하며 혁명의 앞길에서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이게 됩니다. 당안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간고하고 복잡한 전진도상에서 굴함없이 혁명의 기치로 고수할 수 있으며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의 승리에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자체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성해야 하며 자기 인민의 노동과 국내자원에 최대한 의거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각오 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 안에 강인한 의지와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이 지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일군들과 당원들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 밑에 없는 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 것은 찾아내며 모르는 것은 배워서 맡겨진 혁명과업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사업작풍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입니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이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생기발랄하고 전투적인 당으로 만들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노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반대하고 혁명적 기백과 열정에 넘쳐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또한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혁명적 낙관주의의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높은 창발성과 열성을 발휘하여 모든 사업을 진공적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당의 일군들과 당원들은 높은 문화적 소양을 가지고 낙천적으로 문화정서적으로 생활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사업작풍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한 사업기풍입니다. 당 안에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한 사업기풍을 세워야 당이 혁명적 입장을 고수하고 영도적 권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당은 어떤 정황에서나 혁명적 원칙을 확고히 지키며 혁명의 원칙을 관철하는데서 일관성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 안에 당적, 노동계급적 원칙과 어긋나는 온갖 부정적 현상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언제나 당적, 혁명적 입장에 튼튼히 서서 사업하여야 하며 편협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며 모든 문제를 심사숙고하여 공명정대하고 노숙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사업작풍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인민들이 당의 품을 참다운 어머니 품으로 느끼게 하는 인민적인 기풍과 품성입니다. . 노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 위에 군림하는 관료기관이 아니라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어머니 당입니다. 우리 당은 인민들에게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고 그것을 빛내어 나가도록 이끌어주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늘 세심하게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의 품을 진심으로 어머니 품으로 여기며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당이 어머니 당으로 되자면 당안에서 관료화, 귀족화를 철저히 반대하고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인민대중과 혁명의 한길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당의 일군들은 언제나 어머니다운 심성을 가지고 인민들을 대하며 인민의 충복이 되고 성실한 심부름군이 되어야 합니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인민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인민들을 너그럽고 아량있게 대하여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민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의 요구와 애로를 제때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당의 사업작풍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이신작칙의 기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이신작칙하는 것은 당일군들과 당원들의 마땅한 의무이며 고상한 풍모입니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높은 당성, 혁명성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끝없는 안전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철저히 수행하는 고상한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인 투쟁에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지위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오로지 당의 혁명위업에 모든 것을 묵묵히 바치는 숨은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당일군들 속에서는 당에서 맡겨진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강인한 혁명적 의지를 가지고 사소한 이유의 구실, 많은 조건도 없이 맡은 임무를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혁명적 기풍이 서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어떤 초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개인의 명예와 보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누가 보건 말건 자신의 모든 것을 다바쳐 꾸준히 일하고 있습니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혁명의 기수이며 대중의 교양자인 것만큼 모든 면에서 이신작칙하여야 합니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이 이신작칙하는 것은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는데서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을 가집니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대중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어렵고 힘든 일에서 앞장서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사업과 생활, 노동과 학습의 모든 면에서 대중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의 사업작풍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당일군들과 당원들이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을 지니며 청렴하고 결백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이 겸손하고 소박하며 청렴하고 결백한 품성을 가져야 대중과 친숙하게 어울릴 수 있고 사회적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어떤 직위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로 세도를 쓰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이 생활하는대로 소박하게 생활하며 겸손하고 예절있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가식이 없고 정직하며 진실하고 솔직하여야 하며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말고 특혜와 특전을 바라지 말며 허례허식과 부화타락한 현상을 반대하고 사회주의생활양식대로 고상하게 생활하여야 합니다.

당의 영도예술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일군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혁명적 군중노선을 구현하기 위한 심각한 사상투쟁입니다. 우리 당은 당건설과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당의 영도예술을 바로세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임으로써 전당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영도예술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영도예술이 확립됨으로써 당의 면모가 더욱 새로와지고 모든 사업이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었으며 당과 대중과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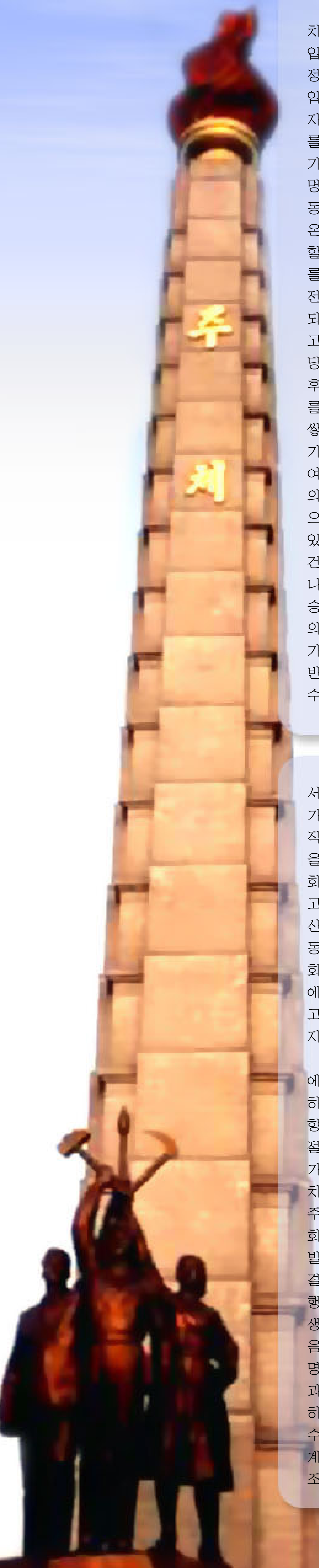
## 7.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의 향도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당의 영도 밑에 대를 이어 계속되는 역사적인 위업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끝까지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서는 혁명이 전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노동계급의 전위조직인 당을 계속 강화,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당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우리 당을 혁명과 건설을 끝까지 영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믿음직하게 향도해나갈 주체의 혁명적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의 향도자로 강화,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옳게 계승하여 나가야 합니다.

당 위업을 계승하여 나가는 데서 기본은 정

→

## 우리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이론을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심화되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맞게 계속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치적 수령의 후계자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후계자문제는 정치적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문제입니다. 수령의 영도적 지위와 역할을 그 후계자에 의하여 변함없이 계승되어야 합니다. 대를 이어 계속되는 노동계급의 당의 위업을 누가 어떻게 계승하는가 하는 것은 당의 운명,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며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 영도를 원만하게 실현할 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갖춘 인민의 지도자를 후계자로 내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혁명의 전진도상에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어도 동요와 우여곡절이 없이 당의 위업을 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당의 위업을 옳게 계승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후계자를 바로 내세우는 것과 함께 그의 영도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쌓고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당의 기초를 쌓고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잘하여야 당의 전투력과 영도력을 높이고 당대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고수할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당은 당건설에서 이 사업을 중요한 문제로 틀어쥐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사상과 영도를 계승할 수 있도록 당 수뇌부가 튼튼히 꾸려지고 당의 조직사상적 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당의 영도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이며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당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합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야 하며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는 온갖 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당중앙위원회의 영도체계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킨다면 당이 전투력있는 조직적 부대로 될 수 없으며 당의 위업을 끝까지 성과적으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의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것을 공고히 하는 사업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합니다.

당의 위업을 계승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당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옳게 계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주체의 혁명전통입니다. 주체의 혁명전통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되고 해방 후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고정에 더욱 풍부화되었으며 오늘 우리 당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당의 영광스런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견결히 옹호하고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혁명전통을 계승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혁명전통일 계승하는데서 순결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오직 우리 당이 이룩한 주체의 혁명전통만을 인정하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며 이밖에는 그 어떤 다른 전통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당 안에 기어들었던 반당, 반혁명종파분자들은 항일 빨치산의 전통만이 혁명전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느니, 혁명전통의 폭을 상하좌우로 넓혀야 한다느니 하면서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온갖 잡탕을 섞어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과 뒤섞어 놓으려고 한 것은 혁명전통을 거세하고 자기들의 종파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책동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흐리게 하거나 말살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노동계급의 당의 위업은 공산주의가 건설된 다음에도 계속되며 따라서 공산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당을 강화,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공산주의사회에서도 끊임없이 계속되게 됩니다.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되면 인간해방을 내용으로 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완전히 실현되지만 그 때에 가서도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는 끊임없이 높아집니다. 공산주의사회에서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맞게 사람들을 교육, 교양하고 사회관계를 개선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을 교육, 교양하고 사회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더욱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며 자연을 개조하고 물질적 부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도 보다 거창한 범위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된 다음에도 당과 같은 영도적 정치조직이 있어야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옳게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사회에서도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공산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텔리화 되어 사회적 구성이 단일화되고 모든 사회 성원들의 근본 요구와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정치적 영도가 없이는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사회에서 사회공동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사회적운동이 진행되고 사회가 발전하려면 반드시 사회공동의 투쟁목표와 행동방향을 제시하고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고 일치시키는 사회적 기능, 정치적 영도가 있어야 하는 것만큼 그 담당자인 영도적 정치조직이 있게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공산주의사회는 조직화된 사회입니다. 공산주의사회는 사람들 사이의 단결과 협력관계가 매우 발전된 사회이며 온 사회가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되고 모든 사회적 활동이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입니다. 단결과 협력은 사람들의 생존방식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처음부터 단결하고 협력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여 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단결과 협력관계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 발전하며 공산주의사회에 가서 그것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결과 협력관계의 발전, 사회의 조직적 결속은 일정한 정치조직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합니다. 가장 발전된 정치조직에 의해서만 사람들 사이의 단결과 협력관계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룩할 수 있으며 온 사회의 견고한 조직적 결속과 조직적인 공동행동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사회는 사람들이 완전한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가지고 가장 값높은 삶을 누리는 사회입니다. 가장 값높은 삶이란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지닌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입니다. 사람이 값높은 삶을 누리려면 사회, 정치조직의 성원으로서 정치생활을 하여야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값높은 삶에 대한 사람들이 지향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높아집니다. 공산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은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정치생활을 하며 사회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최대의 행복과 보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공산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이러한 지향과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사람들에게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회공동의 위업을 수행하는 길에서 빛내어 나가도록 이끌어주는 발전된 정치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사회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강화, 발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선노동당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는 정치조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의 향도자로 전망성있게 건설하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의 향도자로 전망성있게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전당을 주체사상화하여야 합니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당을 명실공히 주체의 혁명적 당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을 주체사상화하려면 모든 당원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어야 하며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여야 당의 주체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당의 전투력과 영도력을 끊임없이 높여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의 향도자로 전망성있게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당건설 사상과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이 창조하고 발전, 풍부화시킨 당건설 사상과 이론은 당을 강화하고 주체의 당건설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지침입니다.

우리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이론을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심화되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맞게 계속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참으로 풍부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우리 당이 얻은 당건설 경험은 앞으로 우리 당을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당일군들은 우리 당건설의 역사적 경험을 깊이 연구, 학습하여 자신의 정치실무적 자질을 높이며 당사업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끝)

3권 제7장

## 인민의 세상


1. 보금자리
2.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3. 소비에트냐, 인민혁명정부냐?
4. 국제당파견원
5. 백마에 대한 추억

# 3. 소비에트냐, 인민혁명정부냐?(1)

유격구에서 좌경바람이 제일 우심하게 나타난 것은 정권건설 분야였다. 정권건설에서의 좌경적 편향은 교조주의, 사대주의, 모험주의에 중독된 사람들의 소부르주아적 조급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에트 건설노선과 소비에트의 명의로 실시된 일부 시책들에서 집중적으로 발로되였다.

정권건설과 관련된 문제는 벌써 ≪ㅌ·ㄷ≫시절부터 우리의 논의에 올라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중요한 화제거리가 되였다. 정권 문제는 조선청년들에게 있어서 독립 후에 상정해도 될 장래의 것이고 또 국권수복이 이루어지는 조건에서만 그 건설에 착수할 수 있는 이념상의 문제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권형태에 대한 견해는 곧 그것이 어떤 성격의 혁명을 추구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였다.

정권 문제가 우리의 정치생활에서 가장 격렬한 논의거리로 되였던 것은 길림시절이였다. 길림의 정치무대에서 독립 후의 국가 형태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때란 거의 없었다. 3부 계통의 독립군 지도자들이 왕조정치나 부르주아공화제를 주장하며 기염을 토할 때 김찬, 안광천, 신일용과 같은 구공산당 계열의 정객들은 즉시적인 사회주의의 실현과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부르짖었다.

박소심도 고전의 명제에 집착되어 노동자, 농민의 독재를 운운하였다. 그는 노농대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는 것은 지지하면서도 독재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늘 머리를 내저었다.

길림청년들은 그 준비정도와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왕조정치를 지지하기도 하고 부르조아공화제에 미련을 가지는가 하면 쏘련식 사회주의에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하였다.

김혁, 차광수, 계영춘, 신영근과 가튼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독립군영감들이 왕조복귀를 운운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열을 내였다. 즉시적인 사회주의실현에 대해서는 반신반의의 태도를 취하였다.

이런 실정은 우리로 하여금 정치토론이 주되는 내용으로 되고 있던 청년학생들의 연단에서 정권 문제를 크게 상정시키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 후 우리는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정식화한 데 기초하여 공산주의자들이 광복된 조국에 수립해야 할 정권은 마땅히 왕조정치나 부르주아의회제 정치를 배제한 인민을 위한 정치제도, 다시 말하여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 민족자본가, 종교인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정권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31년 12월의 겨울명월구회의에서 정권 문제가 논의될 때 우리가 표명한 주장도 본질상 이와 동일한 것이였다.

간도지방에 유격근거지가 창설되면서부터 우리 혁명에서는 정권건설문제가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 일정에 올랐다. 해방지구 형태의 유격구를 유지하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자면 그 영역 내의 인민들에 대한 경제조직자적, 문화교양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권을 건설해야 하였다. 국가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유격구에 정권을 세우지 않으면 인민들을 먹여살릴 수도 없었고 그들을 투쟁에로 조직동원할 수도 없었다.

이런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동만지방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은 1932년 가을부터 유격구역들에서 정권수립을 위한 역사적인 노정에 들어섰다. 그 해 10월혁명기념일을 계기로 왕청현 가야허에서는 군중대회를 열고 소비에트정부수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연길현 왕우구와 삼도만에서도 소비에트가 수립되었다. 유격구역에 혁명정권이 선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인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시켜주는 의의 있는 사변이였다.

처음에는 나도 유격근거지들에 소비에트정권이 수립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 명칭이야 어찌되었든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권이라면 그만이라고 보았다.

당시는 ≪소비에트열풍≫이 온 동만 땅을 휩쓸던 때였다. 소비에트를 수립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각국의 혁명투사들과 진보적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의 공인된 사조로 유행되고 전파되었다. 그 열풍은 구라파와 아시아를 가리지 않았다. 중국 서금의 중화소비에트와 월남의 느구엔-딘 소비에트의 수립은 그 좋은 예증이 된다.

조선혁명의 성격을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으로 본 사람들도 노농소비에트정권을 논하였다.

국제당 본부에 가 있던 조선의 최성우 등이 국제당 집행위원회에서 동방부의 일을 맡아보던 일군들(꾸우씨넨, 마지야르, 오까노)과 함께 작성하였던 ≪조선공산당 행동강령≫은 조선의 완전독립과 함께 ≪노동자, 농민의 소비에트국가 수립≫을 당면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소비에트노선을 지지하고 그를 혁명실천에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의문의 여지조차 가질 수 없는 하나의 상식으로 되었으며 혁명적, 공산주의적 입장과 기회주의적 입장을 가르는 일종의 기준으로 되고 있었다.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본주의나라의 공산당들과 공산주의조직들에서도 소비에트정권건설을 지상의 과제로 내세웠다. 실로 소비에트는 전 세계 무산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이상으로 되어 있었다.

소비에트가 그처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은 것은 그것이 온갖 형태의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절대화할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정권형태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착취와 억압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상에 대한 동경은 인류가 세기를 두고 꿈꾸어온 염원이고 이상이였다.

러시아에 수립된 청소한 소비에트정권은 전복당한 착취계급의 반란을 분쇄하고 제국주의 연합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며 경제를 복구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시키는데서 실로 이 세상 그 어떤 정권도 이루어본 적이 없는 미증유의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소비에트사회주의의 이러한 개선행진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소비에트에 대한 숭상을 환상의 경지에까지 떠밀어가게 하였다.

인류가 쏘련을 등대로 바라보고 소비에트를 모든 정권형태들 가운데서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무리가 아니었다. 쏘련과의 접경지대였고 또 신생 쏘련의 영향을 이모저모로 많이 받고 있던 강조지방에서 소비에트에 대한 환상이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남북만원정을 마리고 왕청에 돌아온 나는 소비에트의 시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유격구 도처에서 울려나오는 현실을 목격하고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목소리들은 우리가 무심히 스치고 지나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거리들을 안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그 두서없는 뒷소리들에 진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곧 간파하게 되었다.

나는 유격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인민들이 소비에트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더 깊이 요해하기 시작했다. 수십수백 명의 인민들과의 부단한 접촉, 그들과의 진지하고도 허심탄회한 담화는 나로 하여금 소비에트정권이 빚어놓은 좌경적 시책의 후과를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소왕청일대전경

→

유격구사람들이 소비에트를 시답잖게 보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즉시적인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는 극좌적인 구호밑에 사유재산 철폐를 선포하고 토지와 식량으로부터 낫, 호미, 걸이대와 같은 농쟁기에 이르기까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동산, 부동산들을 공동소유로 만들어버린 때부터였다. 소비에트 정부는 재산의 공유화를 일사천리로 강행한 다음 유격구 안의 모든 주민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동생활, 공동노동, 공동분배의 새로운 질서밑에서 움직이도록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소비에트 급진론자들이 염불처럼 외우고 다니던 ≪아르젤리≫생활이라는 것이었다.

유치원생이 소학, 중학, 고등학교도 거치지 않고 대학으로 직행한 셈이었다.

소비에트 정부는 또한 큰 지주, 작은 지주, 친일지주, 반일지주를 가리지 않고 유격구역 안에 있는 모든 지주들과 부농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였으며 마소와 양식까지도 일률적으로 수탈하였다.

동만땅이 소위 ≪적색구역≫과 ≪백색구역≫으로 분리된 후 적구로 내려가지 않고 유격구역에 남은 지주들은 대체로 반일감정이 강한 애국적인 지주들이였다.

공산주의자들이 왕청골 안에서 무장대오를 꾸릴 때 그들은 유격대에 대한 후원도 잘하였다.

그런 지주들 가운데 장시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진보적인 중국인 지주도 있었다. 1932년 봄의 대≪토벌≫ 때 간도임시파견대는 그의 집 쌀창고까지 불태워버렸다. ≪토벌대≫가 총대를 휘두르며 강제철거령을 내렸지만 장시명은 그때 대두천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남아 있었다. 일본사람들에 대한 장지주의 원한은 그 봄부터 더 깊어졌다. 그는 지주였지만 유격구 사람들의 생활을 물심양면으로 잘 도와주었다.

≪유격구 어른들, 나는 왜놈들의 꼴이 보기 싫어서 이 골 안에 그냥 남은 사람이웨다. 저 악귀 같은 놈들을 대두천시내에서만이라도 좀 몰아내주시우다!≫

유격대원들이 모연공작을 가면 장시명은 이런 부탁을 하였다.

유격구 인민들은 그 지주와 아주 사이좋게 지냈다.

그런데 소비에트정권은 이 지주마저 적구로 쫓아버렸다. 장시명이 유격구역에서 내려가지 않게 사정을 봐 달라고 애걸하였지만 소비에트는 그 요구를 외면해버렸다.

≪소비에트정권은 지주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게 되었다. 당신이 반일정신이 강한 사람이고 지난날 유격구사업을 잘 도와준 것은 사실이지만 착취계급에 속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숙청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이 고장에서 속히 떠나라.≫

이것이 반일지주에게 내린 소비에트의 선고였다.

혁명을 성심성의로 원호하던 장시명의 재산은 즉석에서 수탈되어 소비에트정부가 관할하는 창고로 모조리 들어갔다. 알몸이 된 장지주는 눈물을 흘리며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대두천으로 내려갔다.

그 당시 숙청사업에 동원된 사람들은 지주들의 장궤속에 있는 아이들이 꽃신까지도 다 털어갔다. 중국사람들한테는 집에 여자애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커서 시집간 다음 낳을 어린애에게 신길 신발까지 미리 다 만들어두는 재미나는 풍습이 있었다. 그런 신발을 꽃신이라고 하였다. 돌전 애기 것부터 시작하여 한 살, 두 살 올라가면서 문수가 다른 꽃신들을 연방 만들어 장궤속에 간수해두곤 하였는데 그런 신발 가운데는 골무만치 작은 것도 있었다.

이런 신들까지도 다 수탈해 갔으니 그것을 묵묵히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지주들이 유격구를 떠나면서 무슨 생각인들 안하였겠는가.

왕우구유격구 인민혁명정부기발

소왕청골 안에는 유산자들한테서 몰수한 마소가 우글우글하였다. 어지간한 목장을 꾸리고도 남을만한 양이어서 근거지의 청년들은 누구나 다 말을 타고 다녔다. 소비에트 치하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멋이라면 멋이었다.

좌경분자들은 중국 여자들이 전족을 하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까지 투쟁대상으로 삼았다.

1930년대 전반기는 동만지방에서 좌경의 전성기였고 좌경의 전횡속에서 신성한 혁명적 원칙들이 시련을 겪고 있던 시기였다. 어떻게 되어 좌경바람이 이처럼 동만 땅을 휩쓸 수 있었던가. 간도의 유격구역에 모여 있던 혁명가들이 모두 망종이었거나 이성을 잃은 미친 사람들이였단 말인가.

아니다. 유격구를 다스리던 절대다수의 공산주의자들은 숭고한 혁명적 이상과 따뜻한 의리를 지닌 훌륭한 인간들이였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인간을 뜨겁게 사랑하며 정의로운 것을 열렬히 지향했다. 그런데 그처럼 인정에 무르고 분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좌경노선의 제창자, 집행자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범하게 되었던가?

우리는 그 원인을 노선에서 찾았고 그 노선을 작성한 사람들의 사상적 미숙성에서 찾았다. 실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꼭대기에 앉아서 고전의 일반적 원칙과 선행자들의 경험을 통째로 직수입한 현실성이 없는 지령들을 마구 만들어 내려보내다나니 실천상에서도 무리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무턱대고 배척하는 것, 닥치는 대로 청산하고 타도하고 매장하는 것이 가장 철저한 계급성으로 인정되고 가장 선봉적인 혁명가의 표징으로 평가될 때였다.

좌경이 얼마나 신성시되었으면 왕청농민들이 한때 과부가 길쌈을 해서 벌어 얼마간 변돈을 놓은 것까지 고리대라는 딱지를 붙여 그 채용증을 소각해버리고 본전마저 떼먹었겠는가. 지도자들의 배후조종이 없이는 순박한 농민들이 이런 강짜를 부리지 못한다.

나는 언제인가 왕청에서 이응만 중대장이 무장대로에 가입한 경위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초기에 무장단에서는 자기 대오에 노동자 출신들과 빈고농 출신들만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응만이네 집에는 1만 평가량 되는 척박한 산전이 있었다. 이 1만 평 때문에 그는 빈고농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가 무장대오에 받아달라고 여러 번 간청하였으나 동무들은 성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매번 퇴박을 놓았다. 1만 평이면 중농이라는 것이다.

이응만은 고심 끝에 부모들 모르게 밭을 팔아 장만한 돈으로 브로닝권총 한 상자를 사가지고 가서 무장대오에 넣어달라고 졸랐다. 그때에야 동무들은 그를 무장대오에 받아주었다. 이응만은 유격대원이 되었다고 기뻐하였지만 땅 1만평을 하룻밤 사이에 잃어버린 그의 가족들은 생존의 길이 막혀 하늘만 쳐다보게 되었다.

좌경을 경계하고 용납하지 말아야겠다는 나의 결심은 간도땅에 와서 더 굳어졌다. 나는 그때에야 일생동안 좌경과의 투쟁을 하여왔다. 간도시절의 체험은 해방 후 우리가 좌경을 예방하고 관료주의를 청산하는 투쟁에서 큰 도움으로 되었다. 번지르르한 혁명적 언사와 초당적인 구호의 뒤에서 좌경은 항상 대중을 우롱하고 억누르고 기만하며 공명과 출세를 꿈꾼다. 그 공명과 출세를 위하여 자기를 최전선에서 돌진하는 탱크나 장갑차로 묘사하는 것이 좌경이다. 변장한 반혁명이 좌경의 모습으로 둔갑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경각성을 높여 자기 진지에 좌경이 발붙일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좌경적인 소비에트 시책이 빚어낸 후과로 하여 유격근거지에서는 수습하기 어려운 동요와 혼란이 생겼다. 많은 가정들이 소비에트 시책에 불만을 품고 적구로 떠나가버렸다.

어느 날 밤 나는 대원들을 데리고 2중대 정치지도원 최춘국이 있는 셋째섬으로 가다가 유격구를 버리고 솔가도주하는 한 장년의 가족을 만났다. 대낮에 떠나가다가 붙잡히면 반혁명의 딱지를 쓸 수 있으니 밤시간을 택한 것이다. 식구는 다섯이나 되었는데 짐짝들을 얼마 없고 알몸에 가까운 차림새였다. 그 사람에게는 아내와 아이들 셋이 올망졸망 달려 있었다.

50에 가까운 그 장년은 총멘 군인들을 알아보자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유격대 지휘관한테 발각되었으니 이제는 다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댁에서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추위에 떨고 있는 세 아이를 한 아이, 한 아이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부드럽게 물었다.

≪아니, 아무 죄도 짓지 않았수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유격구를 떠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여기서는 숨이 막혀 더 살 수가 없어서…≫

≪그럼 어디로 가실 생각이였습니까? 적구에 가면 여기보다 숨이 더 막힐텐데.≫

≪우리가 왜놈들의 등쌀에 못이겨 유격구에 들어왔는데 그 몹쓸 놈들한테야 어찌 다시 발길질을 하겠습니까. 인적이 없는 깊은 산골을 찾아가서 화전이라도 일구어 연명을 해갈가 합니다. 그러면 마음만이라도 편할 게 아닙니까?≫

나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 마촌보다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간다고 내일의 생계조차 기약할 수 없는 그들에게 과연 마음편한 생활이 펼쳐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해토도 되지 않고 풀도 돋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끼니를 댈 차비새가 돼 있습니까?≫

≪있기는 뭣이 있겠습니까. 가서 기력이 진할 때까지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그저 그런 거지요. 이제는 목숨이 붙어 있는 것도 막 귀찮습니다.≫

곁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사람의 부인이 문득 어깨를 떨며 흐느꼈다. 그러자 내 품에 안겼던 세 아이도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입술로 삼키면서 어둠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렇게 하나둘씩 다 떠나고 나면 구경은 누구를 믿고 혁명을 한단 말인가? 우리 혁명이 어쩌면 이렇게도 처량한 막바지에 다달았을까? 소비에트의 무모한 시책이 빚어낸 후과는 이처럼 파국적인 것이였다.

≪이제 얼마간 있으면 세월도 바로잡히게 될 터이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시국이 평정될 날을 기다려봅시다.≫

나는 대원들을 시켜 노상에서 만나 그 가족을 집에 데려다주게 하고 2중대 병실에 가서 자려던 예정계획을 변경시켜 서대파에 있는 최자익노인을 찾아갔다. 이왕 가슴아픈 일을 당한 바에는 유격구의 민심이 어떤지 더 속속들이 캐고 들려는 것이였다.

(내일 계속)

송시

# 보 배 손

제주에 사는 양민철

나처럼 흙만지는 그 손
두엄이랑 주무르는 그 손을
글쎄 **김일성**주석님께서 잡아주셨단 말이죠

이슬젖은 논두렁길 헤치시며
찾아 오신것만도 황송하온데
투박한 그 손 꼭 잡으시고
글쎄 보배손이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놀라워요, 놀라워!
주석과 농민은 하늘과 땅차이
어쩌면 그럴수가

하긴 주석님은 대대로 농사짓는
만경대농가에서 탄생하셨다죠
민중을 선생으로
하늘처럼 여기셨다죠

부지런한 실농군이셨고
현명한 농학박사셨다죠
생신날조차 온종일
파종한 들판에 나가계시고
심지어는 저택의 정원까지도
시험포전으로 꾸리셨다죠

아! 주석님
우리 농꾼들을 너무너무 잘아시는
**김일성**주석님
생전에 단 한번만이라도 만나뵈었더라면

여보세요, 이북의 농민대표
주석님 잡아주신 보배손
나도 좀 잡아봅시다

땅처럼 푸근한 그분의 체취
이제라도 느껴보게
낟알내음처럼 그윽한 그분의 민중사랑
그 향기에 젖어보게

그리고 우리 굳게 잡은
이 손으로
우리끼리 통일의 문 엽시다

아- 그러면 김일성주석님
농민의 보배손이 정말 큰일을 했다고
무척 기뻐하실테죠

주석님과 꼭같으신 **김정일**영수님
보배손이 이젠 통일손이 됐다고
무척 대견해 하실테죠

흠모

# 신념과 지략, 담력으로 이기시는 천하제일명장

조선인민군 창군 70돌을 맞으면서 이남 민중들속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경모심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천하를 굽어보며 창공높이 우뚝 솟아 있는 백두산의 기상과 슬기, 담력을 지니시고 복잡다단한 세계를 쥐락펴락하시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시고 빛내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통일운동가 송모씨는 이렇게 칭송했습니다.

≪인류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 전쟁들에서 많은 명장들이 자기의 지략과 용맹을 과시하였다. 하지만 명장으로써의 품격과 자질을 완전무결하게 갖춘 전설적 위인은 동서고금에 일찍이 없었다.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 뛰어난 지략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이익을 굳건히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역사가 알지 못하는 희세의 천출명장, 전설적 위인이시다. 인류가 높이 받들어모신 위대한 영수, 비범한 군사예술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해서 각일각 닥쳐오는 전쟁위험을 필승의 신념과 강철의 의지, 뛰어난 지략과 무비의 담력으로 제압하시며 우리 민족과 전인류가 불행과 재난에 빠질세라 보살피고 계신다.≫

그분의 군사적 예지에 대한 칭송은 대구에 사는 한 회사원의 글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모신 민족의 영광과 자긍심을 소리높이 자랑하자≫에서도 실감되는데요. 그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군사적 예지는 아무리 착잡한 군사정치상황하에서도 순간에 천리앞길을 내다보고 방략을 세워나가시는 천재적 예지이며 그분의 담력은 천만대적이 달려들어도 끄떡하지 않고 맞받아 나가시는 필승의 담력이며 그분의 지략은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연속적인 승리를 마련해나가시는 백전백승의 지략이다. 비범한 지략과 강철의 의지로 승리에 승리만을 거듭해가시는 만고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르며 이남 민중 모두의 마음은 그분께로만 달리고 있다.≫

우리 민중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토록 우러르며 따르는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믿고 따를 분은 오직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뿐이시라는 절대적인 숭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는데요.

인천시에 사는 퇴역장성 김호선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지난 시기의 명장들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지니고 계신다. 20대에 벌써 항일빨찌산대장, 전술적 명장으로 동방에 이름 떨치신 **김일성**대장군과 빨찌산의 여장군으로 용맹을 날리신 **김정숙**여사의 위업을 이으시어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심은 정녕 천출명장의 역사적 출현이시었다. 나는 **김정일**장군께서 항일전이 벌어지던 백두산시절과 6.25전쟁시기에 벌써 ***을 겸비한 천하명장의 슬기와 용맹을 키우셨다는 사실을 두고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더욱이 그분께서 어리신 나이에 소년장군, 미래의 총사령관의 칭호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서울대학교의 김근숙씨도 천하명장 **김정일**장군님은 무적의 강군을 키우신 희세의 영장이시라면서 장군님을 격찬했는데요.

그는 ≪**김정일**장군님은 이 세상 그 어느 명장도 견주지 못할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 탁월한 지략을 지니신 백두산형의 장군이시고 무적의 최고사령관이시다. **김정일**장군님은 외국군사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역사가 알지 못하는 만능의 영장이시다≫라고 격찬했습니다.

그리고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모써클이 펴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진전시회를 돌아본 태백의 광부 신성수씨는 자기 집에 온 동료들에게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존안을 뵈오니 세계적으로 명망을 떨치고 계시는 우리 시대의 거인이심이 틀림없다. **김정일**장군님의 안광에는 예지의 빛이 섬광처럼 빛나고 만능의 활달한 성품과 대하처럼 넓은 도량, 만사람을 매혹시키는 우애심과 백두산형의 기상이 넘치고 있다. 그분은 분명 영도력이 출중하신 전설적 위인이심이 틀림없다. 그런데 미국도 그분앞에서는 감히 위세를 못부리는 것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애국적이고 혁명적인 가정 1**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강좌≫ 제4회 - 학사 김창호선생 주체91, 4월 24일**

#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아버님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부터 세 번에 나누어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애국적이고 혁명적인 가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아버님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인류역사는 수많은 이름 있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다른 품격과 자질로 해서 이름을 남긴 위인이 많았지만 우리 수령님과 같이 뛰어난 품격과 문무겸비의 자질을 다 갖추신 그런 위인을 역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수령님은 오늘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시고 만민의 어버이 이십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참으로 위대한 인간, 위대한 영웅, 위대한 영도자이십니다. 위대하다는 말만 가지고서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하늘이 낸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참말로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은 말만 가지고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수령님은 어떤분이신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대답을 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수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세 측면에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신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십니다. 태양의 빛이 행성에게 광명을 준다면 위인의 사상은 인류에게 광명을 줍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의 진리를 발견하시던 시기는 맑스 - 레닌주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조들이 유포되고 있던 시기였고 그런 것으로 해서 혁명을 하자면 응당 맑스 - 레닌주의를 가지고 해야한다는 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초기 혁명활동 시기에 맑스 - 레닌주의에 정통하시고 그 시대적 제한성을 꿰뚫어 보셨고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는 투쟁과정에 주체사상의 진리를 발견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기초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가장 힘있고 귀중한 존재이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시대의 요구와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사상, 시대를 대표하고 향도하는 위대한 지도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오늘 뿐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시대를 향도하는 영생불멸의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릴 것입니다.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오늘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해서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더욱 발전 풍부화 되고 있으며 불패의 생활력을 가지고 널리 구현되고 있습니다. 주체85(1996)년 2월초에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자주 평화 친선에 관한 주체사상 국제학술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토론회에 참가한 세계 수많은 나라 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은 지난 시기 맑스 - 레닌주의의 거점이였던 러시아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적 회합이 열린 것은 우리 시대 인민들이 주체사상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이 가르키는 대로 나가야 인류를 구원하고 해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체88(1999)년 2월에 일본도쿄에서 ≪자주와 평화를 위한 21세기의 지도이념에 관한 일본주체사상 전국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된 사실. 주체89(2000)년에 들어와서만도 레바논, 이집트, 마르꾸, 요르단에서 주체사상연구소조와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들이 결성되고 인디아, 레바논, 코스타리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주체사상전국 토론회들이 진행된 사실은 오늘의 세기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진하고 승리하는 세계이며 주체사상은 21세기의 지도사상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체58(1969)년 4월 말리에서 처음으로 주체사상신봉자들에 의해서 ≪**김일성**동지 노작연구소조≫가 조직된 후 주체88(1999)년 4월까지 세계 5대륙의 100여개 나라에 1,000여개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오늘만이 아닌 새 세기에 가서도 영원히 빛을 뿌릴 위대한 지도사상을 창시하신 20세기의 걸출한 사상이론가이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셨던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 탁월한 영도력, 만민을 매혹시키는 인민적 풍모는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께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 인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에서 어버이 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을 보고 있으며 그이의 사상과 영도, 인민적 풍모에서 수령님의 사상과 영도, 인민적 풍모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혁명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탁월한 영도자이십니다. 지나온 역사의 정치사를 놓고 보면 반인민적 통치자들은 물론이고 인민을 위한 정치를 펴온 영도자들의 경우에도 아무런 실책이 없이 정치를 해서 혁명과 건설을 이끈 예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 몇 달밖에 안되는 짧은 집권기에도 실책을 범하는 것이 예상사였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혁명과 건설을 영도해 오시면서 실패와 불가능을 모르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과의 20성상의 피어린 항일혁명전쟁과 미제국주의자들이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보려고 감행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고 반제투쟁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시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복잡한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고 오늘은 세상사람들이 그처럼 부러워하는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일떠 세워 주시었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와 같이 세기적으로 뒤떨어졌던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존엄 높은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떠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후시기만 놓고 봐도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또다시 도발하려고 끊임없이 책동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현대수정주의자들은 그들대로 저들의 지시봉에 따라 움직이라고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의 기치로 내세우신 자주 자립 자위의 주체노선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도록 하시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공화국이 자주적인 노선을 지키지 못하고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요구대로 했더라면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의 현명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고귀한 유산인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로 해서 주체의 강성대국건설과 더불어 그 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바쳐오신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이십니다. 우리들은 흔히 정치가는 인덕이 높아야 하고 나라는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이민위천≫의 사상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을 멀리하고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것을 자신의 정치적 신앙으로, 좌우명으로 삼으시였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정치는 인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령님의 덕망은 역사의 그 어느 위인들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숭고한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덕망속에서 곡절많은 운명의 길을 걸어온 오랜 지식인들과 양심적인 민족자본가, 애국심을 지닌 지주, 종교인, 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새 삶의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나 최덕신, 최영희선생을 비롯한 불미스런 과거를 가졌던 사람들도 인생전환의 봄을 맞아 새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은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시고 탁월한 영도자이시며 한없이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이십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셨던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 탁월한 영도력, 만민을 매혹시키는 인민적 풍모는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께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 인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에서 어버이 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을 보고 있으며 그이의 사상과 영도, 인민적 풍모에서 수령님의 사상과 영도, 인민적 풍모를 보고 있습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의 사상이자 **김정일**동지의 사상이며, 나의 영도이자 **김정일**동지의 영도이며, 나의 인격이자 **김정일**동지의 인격이며, 나의 풍모이자 **김정일**동지의 풍모≫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아버님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동서고금의 역사가 알지 못하는 걸출한 사상이론가, 탁월한 영도자이시며 고매한 인민적 풍모와 덕망을 지니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는 수령님의 혁명역사 학습을 통해서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어머님이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70년

세계만방에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 있는 이북의 조선인민군이 자기의 창건 70주년을 맞이한다.

이 행성위에 2백여의 나라가 있고 또 나라마다 자기 특유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선인민군과 같이 창군의 첫발을 내디딘 때로부터 장장 70여년의 역사를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온 불패의 강군은 없다.

조선인민군의 자랑찬 전통은 민족수난의 시기 백두산에서 광복성전의 첫 총성을 울린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의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은 자기의 참다운 민족군대를 갈망해 오던 겨레의 숙망을 실현한 일대 경사였으며 나라의 독립과 민족해방의 전환적 국면이 열린 역사적 사변이었다.

항일대전 초엽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창해일속≫이라고 속단하였다.

그러나 그 ≪일속≫은 창해에 수장된 것이 아니라 창해를 뒤집고 솟구쳐올라 그 위에서 자기의 존재를 뚜렷이 과시했다.

당시 일제가 조선인민혁명군의 존재를 커다란 위험을 내포한 ≪동양평화의 암≫이라고 한 것은 이것을 극명하게 실증해 준다. 정녕 조선인민혁명군은 일제에게는 무서운 존재로 되었으며 식민지민족해방을 갈망하는 우리 겨레에게는 회생의 힘을 주는 마음의 기둥으로 되었다.

백두의 험산준령과 만주광야에서 초근목피로 연명하면서도 오직 **김일성**주석님만 믿고 그분의 영도밑에 일제의 백만대군과 대전을 벌여 온 조선인민혁명군은 1932년 4월25일 자기의 창건을 선포한 때로부터 혈전만리, 불바다만리를 헤쳐오며 마침내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을 승계하여 8.15광복이후 정예무력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은 지난 6.25전쟁에서 미국을 수괴로 하는 15개 추종국가군대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독립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직영도하신 2차례의 혁명전쟁에서 조선인민군의 승리, 이것은 세계전쟁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영웅서사시로 아로 새겨져 있다.

오늘 조선인민군은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있다.

백두산 대장군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전법과 탁월한 영군술, 백전백승의 전략과 무비의 담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어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은 비상히 강화되었다.

조선인민군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고귀한 전통을 이어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으로 정신무장되었으며 위력한 공격수단과 철벽의 방어수단을 다 갖춘 필승의 무력으로 자랑떨치고 있다.

이미 세계적 판도에서 입증된 바이지만 인민군대의 위력은 참으로 세상사람들의 찬탄을 자아내고 있다.

94년 12월 최신예로 자랑하던 정찰헬기를 이북영공에 침입시켰다가 인민군의 휴대무기에 맞아 단방에 격추되었던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 대형정찰기 ≪EC-121≫과 ≪CH-47≫의 격추, 무장첩보선 ≪푸에블로≫호 나포, ≪경호함-56≫호의 격침 등 미국은 여러 기회에 조선인민군의 무자비한 타격을 이미 맞보았다.

또한 여러 계기를 통해 사상의 강군, 결사의 각오를 가진 무적필승의 자폭용사들의 집단으로 철저히 준비된 인민군대의 내면세계도 접해 보았다.

그뿐이 아니다.

조선인민군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내세우고 이북땅 곳곳마다에 세계를 놀래우는 수많은 창조물들과 기념물들을 일떠세웠다.

미군에 통수권을 빼앗긴 ≪국군≫의 치욕에 찬 용병의 행적을 더듬을 때 조선인민군의 위상은 더욱더 빛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위대한 창군자, 영도자가 있어야 그 군대의 민족적 사명감이 투철한 것이며 그 위력이 막강한 것이다.

조선인민군은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민족의 구세주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창건하심으로써 처음부터 애국애족의 뿌리에서 성장했을 뿐아니라 오늘도 역시 애국애족의 화신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민중의 군대, 민족의 군대, 자주의 수호자로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다. 필승불패의 위력을 떨쳐온 조선인민군의 자랑찬 70년 역사도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절세의 위인들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의지를 신념으로 삼고 백두의 전통을 초석으로 삼고 있는 조선인민군은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외래침략세력으로부터 민족을 굳건히 수호하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위용떨칠 것이다.

**사설 - 구국전선**
**주체91, 4월 25일**

# 자주통일로 향한 민심

해외동포여러분, 지금 이 땅의 각계 민중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한사코 방해하는 미국을 단죄, 규탄하고 주한미군을 당장 철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 한 통일문제연구단체가 발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에 의하면 이남 민중의 절대다수인 82.7%가 미국의 대북강경책동에 반대하고 주한미군의 조속한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의 앞길을 가로막아 나선 미국에 대한 당연한 항거의 표시이며 6.15남북공동선언채택이후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자주통일로 향한 민심의 반영입니다.

오늘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외세의 지배와 간섭도 없이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민족자체의 힘으로 자주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로 되고 있습니다.

자주통일을 지향하고 자주통일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미국의 침략과 간섭행위는 *** *****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에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로부터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집권하자부터 반북강경정책을 떠들면서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부시행정부는 9.11사건을 계기로 국군의 호전세력을 부추겨 전군과 전경찰에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게 하고 ≪한국≫에 수많은 침략무력을 투입해 정세를 긴장시킴으로써 일정에 올라있던 남북 사이의 회담들을 결렬시켜 버렸습니다.

미국은 올해에 들어와서도 한나라당패거리들을 비롯한 ≪한국≫의 우익보수세력들을 부추겨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행사를 파탄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악의 축≫이니 뭐니하면서 이북을 헐뜯던 부시행정부는 심지어 이북 핵공격계획까지 공공연히 내돌리면서 이 땅에서 대규모적인 한미합동전쟁연습을 벌여놓아 한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갔습니다.

미국의 광란적인 침략과 간섭책동으로 말미암아 6.15공동선언이행과 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부시집단이야말로 6.15공동선언의 이행과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 침략과 전쟁책동으로 우리 민족의 생존자체를 엄중히 위협하는 악의 무리입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의 반북적대시정책과 전쟁간섭책동을 저지, 파탄시키지 않고서는 남북관계가 전진될 수 없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각계 국민들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해 반미투쟁에 과감하게 떨쳐나서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 민중은 이 땅의 주인이 자기 자신임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은 민족적 존엄과 주인으로써의 권리가 미국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이제 더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한반도에서 침략과 전쟁, 반통일책동을 강화하면 할수록 반미투쟁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킬 것입니다.

주한미군철수는 전체 우리 민족과 세계평화애호민중들의 한결같은 요구입니다.

미국은 7천만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지향을 똑바로 보고 더이상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지 말아야 하며 이 땅에서 미군을 지체없이 철수시키고 지배와 간섭의 손을 떼야 합니다.

**이역의 동포들을 그리며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7일**

#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짓부수자

지금 미국은 이북을 핵선제공격국으로 지목하고 핵전쟁책동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짓부수자≫ 이런 제목으로 임기수씨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이북을 반대하는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책동하고 있어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항의,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미국대통령 부시가 이북을 ≪악의 축≫이라고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반테러전쟁의 무대를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한반도에로 옮기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미국방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핵태세 검토비밀보고서≫에서 이북을 대량살상무기개발국, 테러지원국으로 몰아 핵공격대상국으로 정하고 한정 핵공격을 위한 소형전투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한 것과 뒤이어 벌어진 부시의 서울행각, 그리고 지난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근 70만명의 대병력과 방대한 군사장비들을 동원해 벌인 북침핵전쟁연습인 대규모 한미합동전쟁연습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시정권은 집권 첫날부터 이북의 핵 및 미사일위협을 떠들면서 그를 구실로 범죄적인 미사일방어체제수립을 강행, 추진시켰습니다. 또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은 이북이 최소한 한두개의 핵무기를 생산했거나 생산에 필요한 플로토늄을 축적했다느니 이북의 핵개발의혹을 저지시키지 않으면 세계가 커다란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험담을 대대적으로 유포시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방부는 부시의 지시밑에 이북을 핵공격대상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건 핵몽둥이를 휘둘러 이북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광란적인 핵전쟁책동이 이미 위협의 단계를 뛰어넘어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를 덮씌우려는 미국의 책동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생존과 존엄, 자주권을 지키는 투쟁에서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이북 민중은 우리와 한 핏줄을 나눈 동포,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일으키려는 북침핵공격은 한반도를 핵참화속에 몰아넣는 민족전멸책동입니다.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군사패권주의의 길에 뛰어든 부시호전광은 우리 민족의 운명같은 것은 안중에 없이 위기에 처한 미군산복합체의 숨구멍을 열고 미국주도하에 세계질서를 수립하려는데로부터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켜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재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이 땅의 모든 국민은 우리 겨레의 삶의 터전을 핵전쟁마당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서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미국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를 터쳐 반미반부시항전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시의 ≪악의 축≫ 악담과 서울행각을 계기로 폭발한 우리 민중의 반미진출은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미국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시는 ≪악의 축≫발언, 양민학살에 대해 사죄하라!≫

≪악의 모든 것 미국을 단죄한다!≫

≪미국놈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무기강매 내정간섭 중단하고 미국은 물러가라!≫

≪부시의 대북전쟁책동 분쇄하자!≫

≪이 땅의 악의 근원인 미군은 지체없이 철수하라!≫

이렇게 각계 사회시민단체들, 각계층 민중들은 반부시반미투쟁을 격렬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높아가는 반미기운은 미국의 반북전쟁책동과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배와 간섭행위가 더는 통하지 않으며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군장병여러분도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참화를 덮씌우려는 부시행정부와 그에 편승해 사대매국행위를 일삼는 반역의 무리들에게 총구를 돌려대고 반미반전투쟁에 분기해 나선 각계 민중들과 발걸음을 같이 하기 바랍니다.

국군장병들에게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7일

# 현대판 돈키호테

며칠전이었다.

아들애의 학업성적도 알아볼겸 그애방에 들렸던 나는 퍽 놀라운, 그러면서도 흐뭇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책이라면 머리를 돌리던 애가 얼마나 책에 심취되었던지 인기척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었다.

확실히 철이 들어 가.

자식의 성장을 내심으로 느끼며 어깨너머로 아들애의 책을 들여다보니 소설 ≪돈키호테≫였다. 인기척을 느꼈던지 아들애가 머리를 돌리며 ≪책이 참 재미나요. 돈키호테가 미국의 부시같애요≫하며 폭소를 터뜨리는 것이었다.

생각해 보니 아들애가 정말 신통한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풍차에 마구 접어드는 돈키호테와 ≪악의 축≫을 떠들며 분별없이 돌아치는 부시.

어쩌면 그리도 신통히 꼭 같을까.

이 땅에서 불리워지는 윤씨가 지은 노래 ≪또라이 부시≫가 새롭게 느껴진다.

아닌게 아니라 부시는 정신분열증환자임이 틀림없다.

그는 이북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 있다.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모신 우리 민족을 말이다.

무적의 담력과 배짱, 천하를 다스리는 백전백승의 지략,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 숭고한 인덕정치에 기초한 특출한 영군술을 지니신 분이 바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예로부터 강한 장수밑에는 약한 병졸이 없다는 말이 있다.

오늘 인민군은 백두영장의 위대한 풍모를 지니신 **김정일**장군님의 주위에 똘똘 뭉친 수령결사옹위의 강군으로, 자폭용사들로 준비되어 있다.

어디 그뿐인가.

미국의 한다하는 최신무기도 인민군의 공방수단 앞에선 무용지물이다.

백두영장의 특출한 선군영도로 하여 미국은 언제한번 이북을 굴복시켜 본 적이 없다.

6.25전쟁으로부터 98년 미사일소동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언제나 항복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런 생각을 할수록 나에게는 돈키호테의 말로가 생각났다.

몽둥이에 만신창이 되는 돈키호테가 운명하는 순간에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기사소설은 읽지 말라던 그의 유언이 생각났다. 꼭 미국의 부시의 모습을 보는 듯 싶었다.

그렇다.

현대판 ≪돈키호테≫는 바로 부시이다.

이제라도 ≪돈키호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거든 이성을 되찾아 분별있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구국전선 주체91, 4월 25일

# 경기도, 미군반대 백만서명운동

## 미군기지신설.확장반대와 우리땅되찾기 경기도 운동본부 발족기자회견 진행

주한미군기지 신설확장반대와 우리땅 되찾기 경기도운동본부 발족기자회견및 경기도민 100만 서명운동 선포식이 지난 4월 26일경기도청앞에서 소속회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되었다.

주한미군 기지 신설을 반대하는 수도권 모임인 ≪미군기지신설 확장 반대와 우리땅 되찾기 경기도운동본부(상임본부장 김준기)는 기지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100만 경기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할것과 미군이 이제는 쓸모가 없어진 4천여만평의 땅을 돌려주는 대신 도심 지역 154만평을 요구하고 있다≫며 ≪새로 공여가 거론되는 땅의 대부분이 의정부와 평택, 오산 등 경기도 지역에 집중돼 도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운동본부 집행위원장(최근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준기 운동본부 상임본부장을 비롯하여 전만규 매향리 대책위위원장, 박우석수원공대위,경기민언련 장문화 대표,범민련 경인연합 이태영 의장, 전농 한도숙부의장, 경기도노동운동연합 준비위 도영호 의장, 파주 스토리 사격장토지반환대책위 김남근 위원장등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후 참석자들과 회원들은 오후 3시 평택 K-55기지앞에서 150여명이 참가하여 경기도운동본부 발족식을 거행하였다. 집회에서 김준기 상임본부장은 경기도민이 앞장서서 미군기지를 반드시 반환받자고 결의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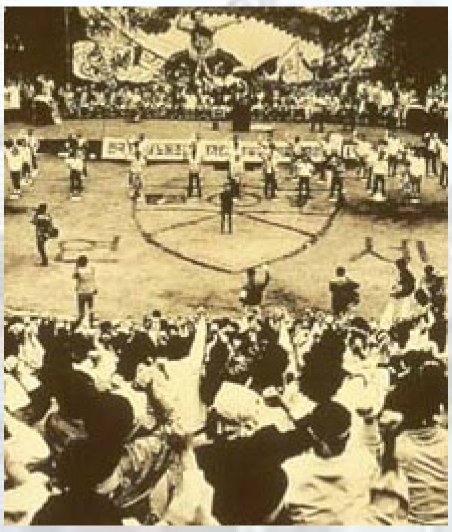
이후 송탄 터미날까지 행진하며 선전전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민중의 소리 2002/04/27

# 전교조 민주화운동 인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수호)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가 27일 오전 본위원회를 열어 전교조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전교조에 대해 민주화운동을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교조는 ≪지난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조치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갖은 탄압에도 전교조가 추구해왔던 참교육실천과 교육개혁을 위한 제반 활동이 역사적으로 정당했다≫며 ≪전교조 운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것은 교육민주화 나아가 사회민주화에 크게 기여했음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또한 ≪이번 결정은 역사 발전이 수많은 개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인에게만 고통을 지웠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식

≪민족 · 민주 · 인간화교육≫을 기치로 결성된 전교조 결성은 1960년 4 · 19 교원노조와 1986년 교육민주화 선언, 1987년 6월항쟁, 1987년 전국교사협의회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전교조의 민주화운동 인정을 환영하면서도 ≪이번 결정은 단지 전교조 결성 및 활동 관련자에 국한돼 있어 매우 미흡하다≫며 ≪교육민주화에 기여했던 사학민주화 관련 해직교사, 사회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국사건 관련 해직교사, 임용제외교사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민주화운동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민주화운동 인정 결정이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즉시 해직기간에 대한 교육경력과 호봉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다≫고 요구했다.

박신용철기자
시민의 신문 2002/04/28

#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25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 규칙 제14조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있다.

사상전향제도를 대체해 98년에 실시된 준법서약제도는 양심수 대석방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양심의 법정≫에서 떳떳하길 원한 양심수들을 향해 김대중 정부는 선처를 베풀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강변했다. 그 강변은 헌재에 의해 반복되고 있다.

헌재는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하기에 국민의 ≪일반적 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수형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거부하면 그만이지 다른 법적 불이익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니 알아서 처신하라 한다.

또한 준법서약서가 소위 시국사범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헌재는 냉전적 사고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남북의 대결상황에서 국가의 존립보장을 위하여 방어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할 수 없기에 해당 수형자들이 지니는 ≪차별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국보법이나 집시법 위반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이북의 대남혁명 전략을 방어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적합하다니, 양심수들이 국가의 강제에 의해 자신의 내면을 게워내야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같은 헌재의 논리는 퇴행과 후퇴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양심의 자유는 내면적 사고의 자유에 그치고 양심을 표명하는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돼왔다. 국제인권규범이 정한 사상 · 양심의 자유는 ≪침묵할 자유≫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양심을 추구할 자유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소수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판결은 그나마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침묵할 자유≫마저도 허용치 않는 뒷걸음질이다.

또한 양심을 지키려면 불이익을 감수하면 될 것 아니냐고 감히 설교하고 있다.

국가의 설교가 있기 전에 양심의 자유자들은 이미 그런 실천을 해왔다. 국가의 몫은 가당찮은 설교가 아니라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다.

인권하루소식. 2081호
2002/04/28

# 공무원노조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

## 공무원도 노동의 댓가로 살아가는 당당한 노동자

지난 4월27일(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는 약 천여명의 서울, 인천, 경기지역 공무원 노동자들과 학생, 사회단체가 모인 가운데 ≪공무원노조 탄압저지와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공무원 노동자 투쟁 결의 대회≫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이 주관하는 가운데 ≪노동 3권 쟁취≫의 목소리를 드높였다.

이날 결의 대회는 부산, 창원, 울산, 대구, 광주, 청주, 원주 등 전국각지에서 총 1만여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참가해 노조출범이후 계속 되고 있는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날 노사정위 앞에서 개최딘 수도권 결의 대회는 수배중인 차봉천 위원장이 부평의 샤미나드 피정의 집(산곡성당) 농성장에서 직접 전화 연결한 대회사를 통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강력한 단결 투쟁으로 공무원 노조를 사수할 것≫과 ≪공무원 노조가 진정한 공직사회 개혁의 견인차가 될 것≫임을 역설하였다. 전국 민중연대 오종렬 대표는 ≪공무원 노조야 말로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주춧돌 ≪이라며 ≪제 시민 사회 단체와 함께 공무원 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 말했다.

민주노총 이수호 임시 비대위 위원장은 ≪공직사회 개혁의 의지는 공무원으로써 명예와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자랑스런 노동자로써의 길을 가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과 민중들은 공무원노조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문옥 고문은 ≪제가 양심선언 할 때 노동조합만 있었다면 잘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도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어야 고위 공무원들의 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었는데 흩어져 홀로 서있는 양심에서 보다 힘을 가질 수 는 것이 노동조합≫이라며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부정부패를 막아냈을 때 국민들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밝혔다.

교수노조 황상익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노조를 결성 했다≫며 공무원노조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정부를 비난했다. 황위원장은 ≪이미 공무원노조는 합법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반,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에 어긋나는 잘못된 법을 바꾸는 것만 남았다≫며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했다. 황위원장은 또 ≪우리는 남이 가진 것을 빼앗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의 댓가로 살기 때문에 노동자인 것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근 오산시 지부장은 ≪수원시 지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기만적인 구조조정은 전체 90만 공무원들과 천만 노동자들에게 꽂히는 구조조정임을 알고 있다≫며 ≪한장의 행자부 지침에 의해 눈앞에서 억울하게 쓰러져 가는 동지들이 없도록 투쟁하자≫고 말했다.

이날 ≪공무원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는 애초 종묘공원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나 행진코스에 다른 집회들이 잡혀 있다는 이유로 집회 허가가 나지 않아 긴급하게 노사정 위원회 앞으로 바꾸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한 관계자는 ≪미리 신고된 집회라는 것이 ≪모 회사 신상품 선전 집회≫ ≪ㅇㅇ상가 번영회 집회≫ 등이었다≫고 밝혔다.

**용오기자**
**참세상뉴스 2002/04/28**

# 남북 이산가족 첫 단체상봉

제4차 이산가족 상봉 남측 가족 99명은 28일 오후 5시 27분께 금강산 북측 지역 금강산여관 2층 로비에 마련된 단체상봉장에서 반세기만에 혈육을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이번 상봉은 지난해 10월에 실시키로 합의됐다 무산된 이후 14개월만에 성사된 것이어서 상봉의 기쁨이 배가됐다.

두시간여 동안 진행된 단체상봉에서 당초 방북단에 포함됐다가 병세가 악화돼 방북을 포기한 뒤 26일 끝내 유명을 달리한 어병순(93) 할머니의 딸 이부자(李富子.62. 전북 남원시 아영면 성리)씨는 북측으로부터 모친 사망을 통보 받은 언니 이신호(66)씨와 통한의 상봉을 했다.

6.25 전쟁 이후 50여년 수절해온 정귀업(鄭貴業.75.전남 영광군 염산면 오동리) 할머니는 꿈에도 그리던 북녘의 남편 림한언(74)씨와 감격적으로 재회했다.

지난 67년 납북된 풍복호 선주 겸 선원이던 남편 최원모(崔元模.92)씨의 부인 김애란(金愛蘭.80) 할머니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남편 대신 6.25 때 헤어진 동생 순실(67),덕실(58)씨를 만나는 것으로 부부상봉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북측에선 당초 186명의 재북가족이 상봉장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실제 상봉 가족은 3명이 줄어든 183명으로 집계됐다.

남측 이산가족 99명은 이날 단체상봉에 이어 북측 단장인 최창식 이북 적십자회 중앙위 부위원장 주최 환영만찬에서 재북가족과 동석만찬을 갖고 금강산에서의 첫 밤을 보냈다.

앞서 남측 가족은 27일 속초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28일 설봉호편으로 금강산 장전항에 도착, 선상호텔 ≪해금강 에 여장을 풀었다. 장전항에는 북측 최 단장과 리금철 북적 중앙위원 등이 마중을 나왔다.

남측 가족들은 방북 이틀째인 29일 개별상봉과 공동중식, 삼일포 공동참관 등으로 북측 가족과 반세기 상봉의 회포를 푼 뒤 30일 금강산을 출발, 속초항으로 귀환한다.

**연합뉴스 2002/04/28**

# ≪깨끗한 손≫ 이문옥이 서울 시장에 출마한 이유

## [인터뷰]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이문옥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노동자, 서민들은 다 나 좋아하더라구.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럼 내가 당선되는 것 아닌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이문옥 민주노동당 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은 26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기자를 만나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지난 90년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재벌들의 로비로 중단된 사실을 언론에 고발했던 이 후보가 ≪부패정치 청산≫과 ≪공직사회 민주화≫를 위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문옥 후보가 ≪CEO 시장 이명박≫ ≪생활시장 김민석≫에 맞서 내세운 슬로건은 ≪깨끗한 손 이문옥≫.

이 후보의 출마는 ≪3홍 비리≫ 등 각종 권력형 비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특히 의미가 커 보인다. 벌써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민심이 ≪노풍≫으로 이어진 것처럼 부정부패 척결을 원하는 민심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옥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이 후보는 자신한다.

### 소신과 전문성을 모두 갖췄다

이 후보는 오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민노당은 투표를 거쳐 다음달 12일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나 이 후보가 단독 출마함에 따라 사실상 후보로 확정됐다고 할 수 있다.

이 후보가 내세우는 자신의 장점은 부패척결에 대한 뚜렷한 소신과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

그는 ≪말만이 아니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직접 싸웠다는 것이 타 후보와의 차별지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90년 감사원의 ≪권금유착≫을 고발한 이후 올해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기까지 그는 줄곧 부패척결을 위한 법 제정, 제도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경실련 경제부정고발센터 대표, 공익제보자들의 모임인 ≪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 초대 회장, 참여연대 자문위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시민감시단장, 민주노동당 부패청산운동본부 본부장 등 지난 10여년간 그의 궤적은 ≪부패 척결을 위해 몸을 던졌다≫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는 지난 96년 법원의 무죄판결로 감사원에 복직해서도 부패방지법 제정을 두 차례나 건의했다. 결국 99년 정년퇴직할 때까지도 법이 제정되지 않자 그는 ≪녹조훈장≫을 거부했다.

지난 2000년에는 혼자 162일 동안 ≪부패방지법 제정≫이라고 쓰인 어깨띠를 두르고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법제정의 필요성을 알릴 만큼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게다가 그는 서울시장을 정치적 발판으로 생각할 만큼 정치적 야심이 크지 않다. 때문에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서울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자신이 있다≫고 한다.

이 후보는 또 행정관료 출신으로서의 전문성을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특히 감사원 재직시 4년간 서울시 감사를 담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 김민석은 노무현과 다르다

이 후보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정치적 인연이 깊다.

≪90년 감사원 비리 고발로 감옥에 갔을 때 우리 집에 제일 먼저 찾아와 가족들을 위로한 사람이 노무현씨다. 또 노씨와는 지난 96년 ≪꼬마 민주당≫에 같이 있었다. 그때 이부영, 박계동, 원혜영, 이철씨 등이 함께 했다.≫

이 후보는 ≪노풍≫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바람이 정당과 상관없이 노무현이란 인물에 집중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꼬마 민주당 시절 ≪3김 정치 청산≫을 외치며 함께했던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를 지적했지만 그는 노 후보에 대해 깊은 애정이 있는 듯했다.

≪김민석 후보는 노무현 후보와 다르다. 살아온 과정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김 후보를 개혁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 후보는 민주당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으로서 김민석은 훌륭하지만 남한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며 정부 예산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서울시의 시장을 맡기엔 경륜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 DJ가 아들 잘못 키웠다

이 후보는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경우 친인척도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솔직히 김 대통령도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던 구시대 정치인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아들들 문제의 책임은 김 대통령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젊은 의원들도 정치자금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정치판에 들어오면 돈 받는 것부터 제일 먼저 배운다. 내가 김민석 후보를 100%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00년 민노당에 입당했다. 부정부패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또 지역감정을 뛰어넘기 위해선 이념정당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 후보는 지난 92년 총선 당시 광주시민 1천여명의 추대를 받아 ≪시민후보≫로 광주 동구에, 96년 총선 때는 ≪꼬마 민주당≫ 후보로 서울 노원구에 출마한 바 있다. 92년엔 27% 득표율로 2위, 96년엔 13% 득표율로 4위. 이것이 정치인 이문옥의 그동안 성적표다.

### 인터넷 통한 사이버 선거운동에 주력

이제 진보정당인 민노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이문옥 후보의 실험이 성공할까?

이 후보는 변화된 정치 환경을 지적하며 기대를 내비쳤다. 인터넷을 매개로 진보적인 젊은층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졌기 때문. 이번에는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도 늘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 지역감정도, 이념공세도 예전에 비해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기대도 크다.

이 후보 측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활발히 벌일 계획이다. 민노당 당원이자 대표적인 문화평론가인 진중권씨도 지난 24일 이 후보의 ≪사이버 대변인≫을 자처하며 이에 가세했다. 현재 이 후보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my.dreamwiz.com/redsqure1. 다음 주 중에 이 후보의 팬클럽 홈페이지(http://www.moonok.com)가 문을 열 예정이다.

전홍기혜기자
프레시안 2002/04/27

#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 (5)


1. 우리는 왜 이 글을 긴급토론자료로 제출하는가

2. 민족민주전선의 세계성과 역사성

3. 민족민주전선의 3대 강령과 조직문제

4. 반제자주역량의 미군 철거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5. 민중적 민주역량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6. 민족민주전선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

▶ 7. 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 정권의 관계문제

▶ 8. 제안 - 6.15공동선언 1주년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자


## 7. 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 정권의 관계문제

김대중 정권의 3대 성격은 친미예속성, 반민중성, 개혁성이다. 김대중 정권의 친미예속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의 정치적 의도와 요구에 따라서 그 정권이 수립되었으며, 또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제국주의세력이 자행하고 있는 지배와 수탈에 대해서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예속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김대중 정권의 반민중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김대중 정권이 남측 민중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희생하면서 남측 독점자본의 요구와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제국주의세력의 경제적 수탈이 더욱 전면적으로 집중적으로 자행되어 사회 전반의 물질・경제적 조건이 날로 피폐해지고 남측 민중의 생존권은 더욱 짓밟히고 있는 데도 김대중 정권은 민중의 요구와 이익을 외면하고 있으며 생존권을 쟁취하려는 노동계급과 농민계급의 투쟁을 폭력으로 짓누르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개혁성이란 무엇인가? 그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일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개혁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일반 민주주의적 개혁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김대중 정권이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일반 민주주의적 개혁성이 곧 민중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권이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달리 일반 민주주의적 개혁성을 지니고 있는데도 남측 민중이 그 개혁성조차 외면하고 있는 까닭은, 제국주의세력과 남측 독점자본의 집중적인 수탈에 짓밟히고 있는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서 일반 민주주의적 개혁성은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중 생존권 투쟁의 시각에서 보면,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김대중 정권 사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김대중 정권은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다.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을 가진 정권은 민족민주전선과 적대관계에 놓이게 된다. 지금 남측 민족민주전선 일부에서 친미예속적이고 반민중적인 김대중 정권을 퇴진시키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제기해야 할 물음은, 민족민주전선이 김대중 정권의 성격을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 그리고 일반 민주주의적 개혁성에 국한해서 파악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은 김대중 정권이 제4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제4의 성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북측에 대한 화해・협력성을 말한다. 바로 이 화해・협력성은 민족민주전선이 김대중 정권과 역대 군사독재정권들 사이에 차별성을 두어야 할 근거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김대중 정권의 화해・협력성이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을 가리우는 위장막 정도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성격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화해・협력성은 위장막이 아니라 제4의 성격으로 실재하고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민족민주전선이 화해・협력성을 실체로 인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화해・협력성을 상대하는 새로운 정치사업을 포치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민족민주전선은 김대중 정권의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을 절대로 묵인해서는 안 되지만,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투쟁을 전면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왜 민족민주전선은 김대중 정권의 화해・협력성을 상대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파악함으로써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조선반도의 정세는 미국, 친미예속정권, 남측 민족민주전선 3자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북측, 미국, 친미예속정권, 남측 민족민주전선 4자 사이에서 결정된다. 이 4자의 관계 가운데 지금 조선반도 정세의 변화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북측과 미국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계의 변화다. 북측과 미국의 관계는 1945년부터 1998년까지 적대관계로 일관되어 있었지만, 1999년에 미국이 ≪페리 프로세스≫를 추진하게 된 뒤부터 적대관계와 협상관계가 중첩되더니 2000년 10월 조・미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에는 차츰 협상관계가 우위에 올라서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부시 정권으로 교체된 지금 북측과 미국 사이에 발생한 냉각관계는 비본질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협상관계로 곧 복귀할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점은, 이러한 북측과 미국의 관계변화가 북측과 친미예속정권의 관계에도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다. 오늘의 친미예속정권이 역대 친미예속정권들과 다르게 북측과 화해・협력을 추진하게 된 근본원인은 애초에 김대중 정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측과 미국의 관계가 변화된 데 있었다. 북측과 미국의 관계변화가 친미예속정권의 대북 적대성을 약화시키면서 화해・협력성을 지니게 만든 것이다. 만일 북측과 미국의 관계가 협상관계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김대중 정권은 대북 화해・협력성을 지닐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북측은 친미예속정권이 조선반도의 정세변화에 따라 지니게 된 새로운 성격, 곧 북측에 대한 화해・협력성을 통일전선으로 견인・포섭하였다.

돌이켜 보면, 북측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을 상대로 해서도 통일전선을 구축하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을 담은 역사적인 7. 4 공동성명이 나올 수 있었다. 또한 북측은 광주학살의 주범 가운데 하나였던 노태우가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 그 정권을 상대로 해서도 통일전선을 구축하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 남북(북남)기본합의서가 나올 수 있었다.

박정희 정권이나 노태우 정권은 일반 민주주의적 개혁성도 없었고, 북측에 대한 화해・협력성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파시스트 정권의 전형이었다. 북측이 그러한 정권들을 상대로 해서도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국통일 3대 원칙과 남북(북남)기본합의서를 내오는 성과를 이룩했다면, 오늘 화해・협력성을 지니고 있는 김대중 정권을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리하여 평양회담이 성사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어 남북(북남) 사이의 화해・교류・협력이 일정한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성사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북측이 김대중 정권을 타도대상으로 규정하였다면 2000년 6월의 역사적 사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통일정세는 유리하게 전변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북측이 6.15공동선언 이후 김대중 정권을 상대로 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현 정세에서 만일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북측이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결국 조국통일위업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는 통일정세는 흔들리게 될 것이다. 북측이 7. 4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정세가 조국통일위업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었던 1972년에 당시 남측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세력이 만일 박정희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걸고 투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한 투쟁은 애초에 의도한 바와는 달리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에 혼란과 장애를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 퇴진투쟁은 박정희 정권이 7. 4 공동성명을 부정하였을 때 전개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은 이 정권이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경우에 전개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전개해야 할 투쟁이 아니다. 문제는 조성된 정세에 맞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불필요한 논쟁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할 것인가 아니면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전선 구축사업을 전개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방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평양회담이 성사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는 데 유리한 전환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지금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정권 퇴진투쟁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을 전면에 배치하고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이후의 현 정세에서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문제를 알지 못하고 있다. 첫째로, 그들은 조선반도 정세의 역학구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세관의 한계를 안고 있다. 그들은 조선반도의 정세가 남측 민족민주전선, 미국, 친미예속정권 3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들은 북측, 미국, 친미예속정권, 남측 민족민주전선 사이의 4자 관계에서 정세변화를 결정짓는 요인이 북측과 미국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을 논외로 치고 3자 관계를 분석한 나머지 민족민주전선과 친미예속정권의 적대관계를 중심에 놓고 정세를 파악하려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민족민주전선과 친미예속정권의 적대관계가 정세변화의 중심이 아니므로 그것을

→

중심으로 정세를 파악해서는 안 된다. 정세변화의 중심축은 북측과 미국의 관계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현 정세에서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측과 미국의 관계가 변화함으로써 북측과 친미예속정권의 관계가 변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민족민주전선과 친미예속정권의 관계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정세변화의 중심축인 북측과 미국의 관계가 변화함으로써 북측과 친미예속정권의 관계는 기존의 적대관계에서 협상관계로, 그리고 평양회담과 6.15공동선언을 분기점으로 하여 통일전선의 관계로 더 전진하였다. 그러므로 남측 민족민주전선과 친미예속정권의 관계는 평양회담과 6.15공동선언 이전의 적대관계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며, 이제는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공조관계로 접어들어야 한다. 여기서 통일전선의 관계라는 개념이 아니라 ≪공조관계≫라는 개념을 쓰는 까닭은 김대중 정권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통일전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정권을 상대로 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북측의 정치역량이다. 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 정권의 관계는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공조관계로 설정되어야 한다.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 이외에서는 공조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공조관계라는 개념은 공동으로 돕는다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그 개념은 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 정권이 6.15공동선언이 실현되도록 상호협조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면, 1992년 9월 필리핀 정권의 철군파가 미군철수를 결정하였을 때 필리핀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정권에 대한 타도투쟁과 무력공격을 중지하고 그 결정을 지지・엄호하였다. 종래의 적대관계가 미군 철수를 위한 공조관계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 퇴진투쟁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공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 정권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타격과 협조의 병행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에 대해서는 타격을 가하고 화해・협력성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양면전술이 그것이다. 타격과 협조를 병행한다고 말하면 막연한 논리가 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내용을 더 밝혀야 한다.

첫째, 타격의 수준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이다. 타격에는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 타격이 있을 수 있고, 상대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되 상대가 자기의 부정적 성격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통제・봉쇄하기 위한 전술적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민족민주전선의 타격목표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에 대해서 전술적 타격을 가하되, 상대의 존재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전략적 타격을 가하는 정권 타도투쟁이나 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둘째, 타격과 협조를 병행하되 선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협조를 앞세우면서 타격해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김대중 정권이 화해・협력성을 폐기하면서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나선다면, 그때 가서는 민족민주전선은 마땅히 전략적 타격을 집중하면서 정권 타도투쟁, 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8. 제안 - 6.15공동선언 1주년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1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당면하여 민족민주전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7천만 겨레의 가슴에 화해의 감동과 통일의 신심을 안겨주었던 그 장엄한 역사를 되살려내야 한다. 수 백만, 수 천만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대한 물결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제국주의세력과 남측의 반통일세력은 6.15공동선언 자체를 파탄시켜보려고 별별 교묘한 술책을 동원하며 날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민주전선은 주저하지 말고 6.15공동선언 1주년 사업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은 촉박하다. 6.15공동선언 1주년 사업을 일회성 연례행사쯤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나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사업은 민족통일전선을 촉진하는 운동기간의 첫 사업이 될 것이다. 그 사업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폭넓은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조직・정치사업이다. 그 사업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북남) 정당, 사회단체 사이의 다방면적 교류를 힘있게, 성대하게, 그리고 진공적으로 전개하는 사업이다. 그 사업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성사시키는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이 마감되는 2001년 8월 15일, 우리는 올해도 8. 15 통일행사를 예견하고 있다. 올해의 8. 15 행사는 예년의 통일행사와 달리 이 운동기간 동안 민족통일전선 구축사업을 승리적으로 결속짓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만일 8. 15 통일행사를 남북(북남) 정부당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가하는 명실공히 전민족적인 공동행사로, 민족화해의 대축전으로 만든다면, 새 세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8. 15는 조국통일운동사에서 가장 뜻깊은 8. 15가 될 것이다.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에 민족민주전선의 모든 힘을 집중하여 임무를 완수하자. 승리를 향한 민족민주전선의 장쾌한 일보전진, 이것이 올해 여름을 구슬땀으로 수놓을 전선일군들의 투쟁목표다. (끝)

**대표집필자 최성원**
**2001년 5월**

광 고

# 구국전선

## 주체91(2002)년 4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사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70년
**백두산 3대장군의 손길아래**
[명제묶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에 관해 주신 교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명언중에서
강철의 영장의 불멸의 업적
조선인민혁명군창건과 그 역사적 의미
무적필승의 강군 그 원천
명장의 풍모를 완벽하게 지니신 군사의 영재
선군영도로 민족의 운명과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신 **김정일**장군
백두의 여장군 **김정숙**여사
[에세이] 내가 본 조선인민군
[시모음] 빛나라 선군의 총대여
[춘추세론] 현대판 돈키호테
**평양소식**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혁명활동 소식

내가 본 조선인민군

- 군사평론가 이대진 -